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도약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2024. 5. 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요약)

(1) 추진배경

□ **(수출효과)** 수출 중소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성장성 및 경영성과 등에서 월등한 성과*를 창출

* (평균매출) 전체 中소 대비 17.2배 이상, (영업이익) 1.8배, (평균고용) 5.1배

□ **(현재모습)** 중소기업 수출 규모와 기업수는 정체

○ 중소기업 수출액은 10년 이상 1,100억\$ 주변에서 등락 반복, 수출 중소기업 수는 매년 9.4만개 내외로 정체

○ 상위 4개국(중·미·베·일)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어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84%가 연수출 100만\$ 미만으로 수출성장 미약

□ **(대내외 변화)** 新무역장벽 및 新정책수요 등장

○ **(新장벽)**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무역환경 급변과 함께 탄소중립·ESG 등 新무역장벽 급증, 우리 기업 부담 확대

○ **(新수요)** 테크 서비스·기술 등 수출이 급증하는 신규 분야가 출현하고, 수출 외 현지 시장진출 목적의 해외법인 설립수요도 증가세

* 수출증가율('14→'23): 전체 8.2%, 기술수출 161%, ICT분야 서비스 수출 367%

**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해외투자 신규법인 비중('12→'22, 수출입은행) : 57.8% → 72.8%

➔ 중소기업과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수출환경**과 **현장 수요 변화**에 맞춘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2)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방안

방향	중소·벤처기업 수출 정책을 글로벌화 전반으로 “확장”하고, 부처·기관간 “연결”을 통해 “성과” 중심 정책으로 개편	
추진 전략	전략1	내수 넘어 수출로 신규 수출·해외진출 동력원 발굴 및 집중 육성
	전략2	수출 넘어 해외로 해외진출 지원체계 확충
	전략3	해외 넘어 미래로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글로벌화 역량 강화
	전략4	원팀 코리아 연결·협업체계 공고화로 글로벌 진출 적극 뒷받침

전략 1 내수 넘어 수출로

1 수출단계별 집중 육성 체계 구축

■ 수출 가능성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수요 맞춤형 정책 강화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벤처·이노비즈, TIPS 등)의 수출 전략 수립·K-혁신사절단 파견 등 1,000개 수출기업화(~'27)
- **(수출유망 초보기업)** 수출액 100만불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닥터제, 수시 애로해소 등 밀착지원해 수출 100만불 기업으로 3,000개사 육성(~'27)
- **(고성장 스케일업지원)** 수출 고성장 기업 특화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및 수출금융 지원 한도 2배 확대 등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24.하)

2 新 수출동력원 집중 발굴

■ 수출 유망품목·국가 정보를 제시하고 지원하는 Top-down 방식 도입

- **(주력품목 발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수출 주력품목을 발굴, 상세정보 제공, 수출 지원예산 20% 내외 지원 등 집중육성('25.상)
- **(K-전략품목)** 한류 인기를 활용한 수출 전략품목을 유통 대기업 및 관계부처와 함께 발굴하고, 민관 협업 지원('24.하)
- **(부처 연계지원)** 9개 부처에서 중점 육성하는 분야별 新 수출동력 중소 기업에 대해 중기부 수출정책을 연계하여 수출 스케일업 촉진('24)

3 테크 서비스 및 기술수출 본격화

■ 기존 제품 수출 외에 수출 성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및 기술 수출을 정책대상에 포함, 본격 지원

- **(정책대상 편입)** 제품 수출과는 상이한 테크 서비스 수출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지원 트랙 마련, 지원 비중 확대('23, 2.7% → '30, 15%)
 - *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않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현지화(UI, UX 개선 등) 등을 신규 지원 (물류운송, 제품 디자인 등을 대체)
- **(기술수출 지원)** 국내기업 기술정보를 등록하고, 기술 수요가 있는 해외기업과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구축('24)

전략 2 수출 넘어 해외로

1 해외진출 K-글로벌 프로젝트 추진

-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등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기존 수출 지원 중심의 정책을 **해외진출로 본격 확장**

- **(바우처)** 해외진출 단계별(준비-실행-현지화)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해외진출 전용 바우처' 도입 ('25.상)
- **(융자)** 해외법인에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평가체계 도입*('24.하), 해외법인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저금리·대규모(한도 50억원) 자금 신규 도입 ('25)
* GBC 등 해외거점을 통해 해외법인을 평가하고 국내 중진공 본사에 통보
- **(보증)**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보증을 연계한 운전자금 지원 강화 (30억 → 50억원, 기보)

2 협업형 해외진출 프로그램 구축

- 수출규제 대응 등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 **대·중소 동반해외진출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의 유망기업 선별기능 활용 강화

- **(동반진출 지원)**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협력기업 대상,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 보증연계 등을 지원하는 '동반진출 상생프로그램' 도입('24.하)
- **(민간 협업)** 대기업 등에서 해외진출 유망기업을 발굴하면 정부 수출 정책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 역량 활용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도입'('25)

3 K-스타트업 해외진출 가속화

-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ODA를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

- **(글로벌 투자유치)** 글로벌 IR 브랜드(K-GLOBAL STAR)를 신설('24.하), 투자유치시 TIPS, 모태펀드 매칭 투자 등 과감한 정책지원 패키지 제공('25~)
- **(ODA 활용)** TIPS성공기업에 대한 ODA 사업(CTS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 KSC 우선입주 등 정책연계 해외진출 촉진

전략 3 해외 넘어 미래로

1 중소기업 K-수출전사 육성

■ 국내 유학생을 중소기업의 수출 전문인력(K-수출전사)으로 양성·채용 연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현지 대학생 채용 지원체계 신설

- (K-수출전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출직무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수출전사 아카데미' 교육과정 신설 ('24.하)
- (채용연계) GBC,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해 현지 인력 채용 등 연계('24.하)

2 미래 글로벌 기업 육성 R&D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R&D 지원 개편

- (글로벌 R&D)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 R&D 협력을 단계적으로 지원(PoC→R&D→사업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25)
* 佛 파스퇴르연구소 기술사업화 협력프로그램 : '24.하 업무협약 검토
- (해외진출전용 R&D) 해외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전용 R&D를 신설, 단계별(시장조사 → R&D → 현지 실증) 맞춤형 패키지 지원 ('24)

3 해외 규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 기존 해외인증 이외에 수출규제 전반 지원으로 대폭 확대

- (규제 전방위 대응) 기존 해외인증 이외에 공급망 관련 규제(종합컨설팅 지원), 표시규제(시험분석비용 지원) 등 수출규제 전반으로 지원 확대 (~'25)
- (수출규제 협업체계) 해외 수출규제 영향 분석(산업부)과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해당 규제 대응을 신속 지원(중기부)하는 협업체계 구축 ('24.하)

4 중소·벤처기업 정책 글로벌 지향성 강화

- (정책교류·협력) 주요 국가와의 협의체 신설을 통해 정책교류 및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24.5~)
- (글로벌수준 평가도입) 지원사업 신청 시 수출실적·해외진출 노력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 수준 평가제' 도입 ('25)

전략 4 원팀 코리아

1 민관협업 지원체계 구축

- **중소·벤처기업 민관 협의체 운영 본격화(20개 구축, 5.6일 기준 등),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주력**

- **(민·관 협의체)** 재외공관 주재, 공공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운영을 본격화('24.4~)
 - * 베트남, 인도, 워싱턴 등 20곳 既구성(5.6), 5월까지 25개 지역으로 확대
- 국내에도 유관기관 및 민간(금융·회계·법무) 중심으로 국내 원팀 협의체* 구성 ('24.5)
 - * (국내역할) 재외공관 협의체의 현지 정보를 국내 확산, 현지에서 해결하지 못한 애로 국내 검토
- **(GBC-KSC기능 확대)** 재외공관 협의체 창구(간사) 역할 수행과 창진원, 기보 등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 입주·보육, 자금지원 등 종합지원 기능 확충
- **(글로벌 정보 제공)** 국내외 협의체의 해외시장 정보, 애로 해소사례 등을 통합 분석 하는 'Global 센터('24.하, 중기연) 및 분석정보 제공 포털* 구축('25)
 - * 기존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을 확대 개편 (가칭 '글로벌화 종합지원포털')

2 수출지원센터 지역 접점기능 강화

- **(접점기능 강화)** 국내외 민·관 협의체에서 전달받은 현지정보를 지역 기업 전파, 지역별 수출상담회 등은 재외공관에 전달해 실질적 도움 제공
 - * 지자체별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시 국내 원팀을 통해 재외공관 전달, 현지와 사전 정보교류
- **(연결기능 강화)** 우수 수출기업 대표가 해외진출 노하우 등을 지역 기업에 공유하는 '해외진출 노하우 나눔 콘서트' 운영 (센터별 연4회)

3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

- **(통계확보)** 각 부처·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수출 및 해외진출 활동 통계확보 근거 마련,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성과평가 추진('24.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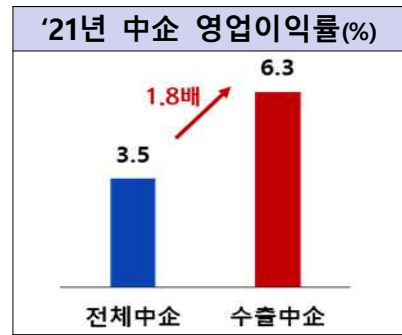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황진단 및 평가	3
III. 추진 방향	7
IV. 세부 추진과제	9
1. [전략 1] 내수 넘어 수출로	9
2. [전략 2] 수출 넘어 해외로	15
3. [전략 3] 해외 넘어 미래로	18
4. [전략 4] 원팀 코리아	22
V. 추진 일정	25

I. 추진배경 : 성장 정체에 놓인 중소기업 수출

□ [수출 효과] 내수기업에 비해 월등한 성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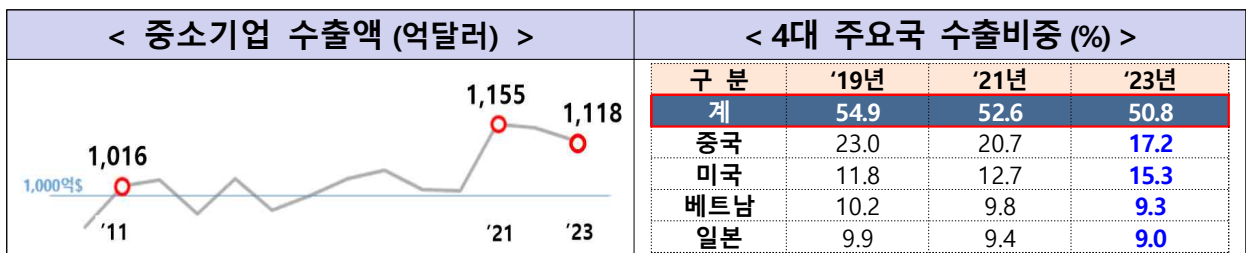
- (성장성)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이 17.2배
- (경영성과) 전체 중소기업 대비 평균 고용 5.1배, 영업이익 1.8배로 수출 중소기업의 성과가 월등히 높은 편 ('21년)



□ [현재 모습] 수출액 및 주력품목 등 모든 분야에서 정체

- 중소기업 수출은 10년 이상 1,100억\$ 주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신규 수출국가¹⁾, 신규 주력품목²⁾ 및 高수출 기업³⁾ 출현 모두 정체

* 1) 4대 주요국 높은 수출비중('23, 50.8%), 2) 연간 수출액 40억\$ 초과 품목은 매년 4개 내외('21년 4 → '23, 4개), 3) 수출 1,000만\$ 이상 수출 中企 감소('21, 2,262 → '23, 2,166개)



□ [다가올 미래]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 대응이 수출 통한 성장 좌우

-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무형 서비스 거래 증가** 등 수출 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은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직면

* 공급망 실사지침(EU), 인플레이션 감축법(美) / ** ICT 분야 서비스 수출(억\$) : ('14) 29.93 → ('23) 139.71

⇒ 중소기업과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수출 환경과 현장 수요 변화에 맞춘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 현장의 목소리 〉

※ '24년 1~4월 간 총 34회* 수출·해외진출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 간담회 11회, 현장방문 12회, 전문가 회의 5회, 협단체 의견 3회, 기타 3회

□ 주요 정책건의

수출 유망품목 “정부가 수출 유망품목을 분석·선정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수출 주력품목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수출도 선도할 필요”

글로벌역량 “수출 초보기업이 전문가 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특히 대기업 퇴직 인력 자문받았을 때 만족도가 높았음”

테크서비스 “서비스 수출 시 현지국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 필요”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을 위해 법인 설립을 추진했으나, 신뢰할 만한 전문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자금지원 “원청 대기업을 따라 미국 현지에 현지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해외법인은 정부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

투자지원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확장’을 위한 글로벌투자 유치 등 다양한 정책 지원 필요”

외국인 유학생 “국내기업과 외국인 학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약에 큰 도움”

수출규제 “합성섬유 원단의 유럽 수출을 위해 생분해시험규격을 충족해야 하나, 고액이 소요되어 경영과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

글로벌 R&D “세계 1등 기업의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산업기술 협력 R&D 강화 필요”

애로해소 “해외에서 여러 지원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현지 ‘중소기업 전담 창구’ 필요”

정보제공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원기관이 흩어져 있어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알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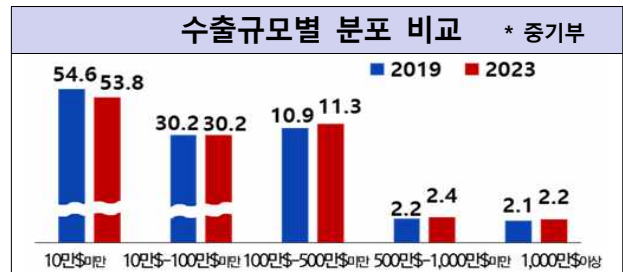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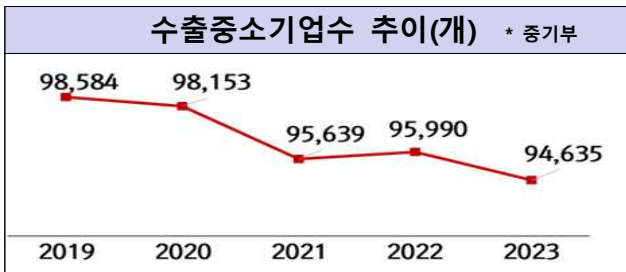
II. 현황진단 및 평가

1 중소기업 현황분석

□ [수출 ①] 경쟁력 있는 수출 중소기업군이 협소하여 수출성장성 미약

- 매년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9.4만개 내외를 등록하고 있으며, 전체 중소기업의 1.2% 수준에 불과
- 수출규모별 분포도 100만 달러 미만 기업 수가 전체의 84.0%를 차지
- 일반 중소기업 상당수는 인력·정보 부족 등에 따라 내수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제조 중소기업 매출액 중 국내 매출 비중(%) : ('18) 89.6 → ('22) 91.8 (中企실태조사)



□ [수출 ②] 고성능 수출기업 및 품목 출현하나 지속성장 애로

- 1,000만\$ 이상 수출中企가 中企수출액의 54% 차지, 기업수 감소
- * '23년 1천만\$ 이상 수출 중소기업 수출액 607억\$(54.3%) / 기업 수(개사) : ('22) 2,237 → ('23) 2,166(△3%)
- 단기간 수출 고성장을 거듭하며 수출 1,000만\$ 기업으로 성장하나, 고성장 시기에 생산자금 확보 등 애로, 정부지원 요구

현장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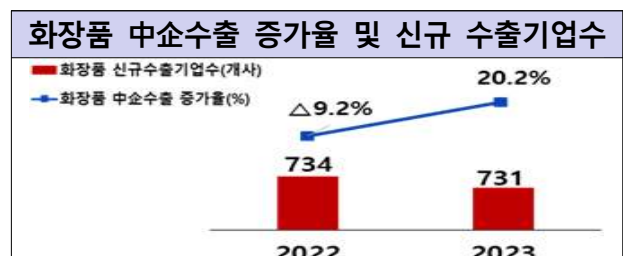
수출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수출대금이 들어오고 있어, 급증하는 수출물량 생산 및 바이어 요구에 맞춘 제품 개선 등을 위해 더 많은 자금 수요 발생

- 해외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품목들이 있으나, 이를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하는 내수기업은 부족

* '23년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이 전년대비 20.2% 증가했으나, 내수기업 중 화장품 신규 수출기업 수는 화장품 수출이 감소했던 '22년과 유사

연도별 수출성장률 상위 품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판DP 제조용장비	중고 자동차	기타정밀 화학제품	정밀 화학원료	알루미늄	중고 자동차
반도체 제조용장비	기타 기계류	의약품	합성수지	석유제품	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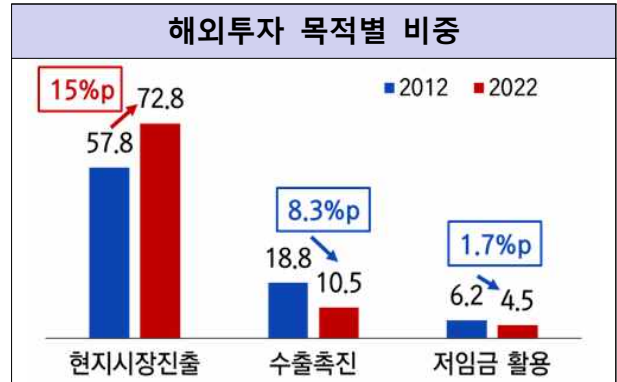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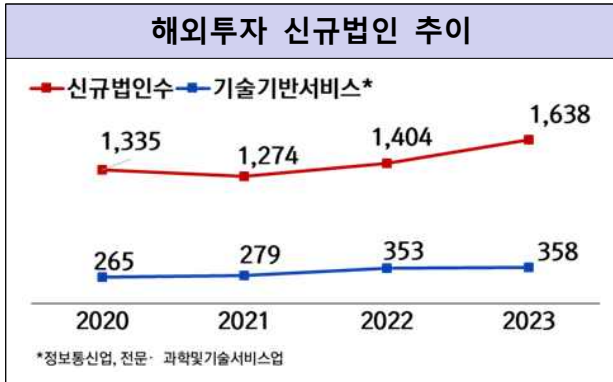


□ **(해외 진출) 테크 서비스 · 스타트업 등의 글로벌화 가속화**

- 테크 서비스·기술 수출이 새로운 수출 분야로 대두

* 수출 증가율 (% '14→'23) : (中企 전체) 8.2, (中企 기술수출) 161, (ICT 분야 서비스 수출) 367

- 수출 외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해외법인 설립 수요도 증가세



* 수출입은행 및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 대응) 중소기업의 미래지향적 글로벌 역량 부족**

- 수출 현장의 인력난*, 세계 최고 대비 낮은 기술수준** 등은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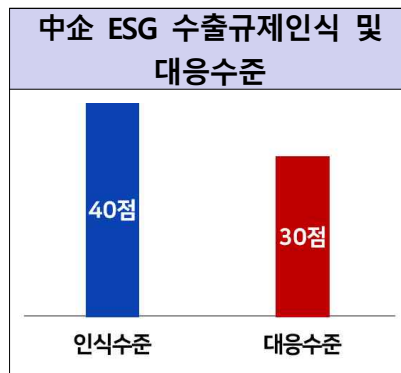
* 무역업계 56.8%가 인력 수급에 애로('23.7, 한국무역협회)

** 中企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100%) 대비 77.0%('23, 中企기술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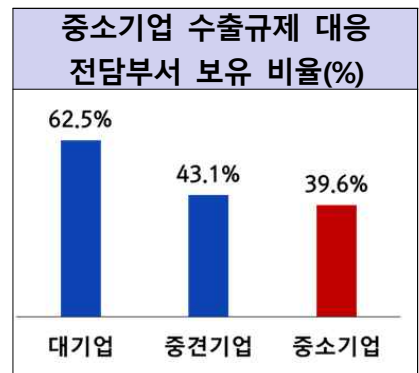
- 급증하고 있는 수출규제, 수출 中企 다수는 탄소중립·ESG 등 新무역장벽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며, 대응 역량은 더욱 부족



* 출처: 국표원



* 출처: '24.2 대한상의 '국내수출기업의 ESG규제대응현황과 정책과제'조사



* 출처: '23.2 국표원 해외기술규제 애로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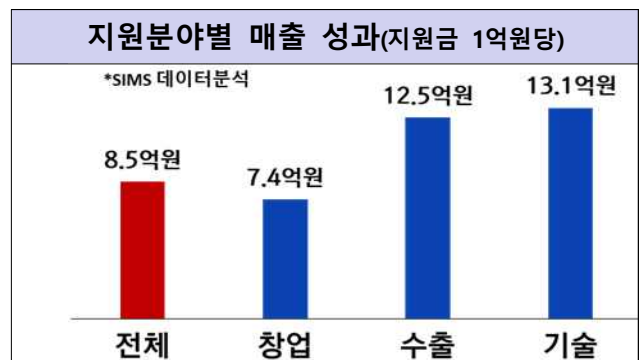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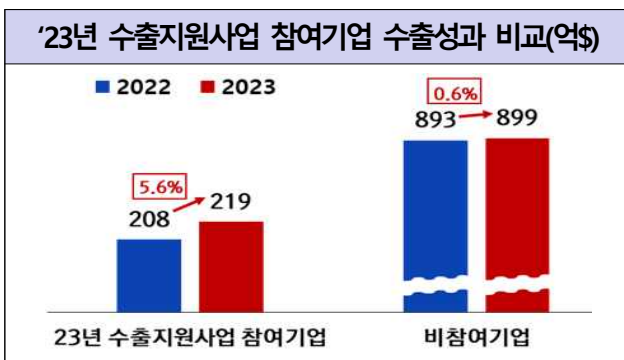
2

정책성과와 한계

□ (성과) 수출 지원사업은 수출·매출증가 등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

- '23년 수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수출 증가율(5.6%)은 지원사업 비참여 수출중소기업(0.6%) 대비 높은 수출 성과를 기록
- 수출 지원 1억원 당 12.5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둬 타 분야에 비해 정책성과 우수

* 분야별 1억원 지원당 매출성과('22, 억원) : 창업 7.4, 수출 12.5, 기술 13.1 (전체 8.5)



* 수출지원사업 수출증가율 : 관세청 수출통관자료('23)

□ (한계) 새로운 수요에 대한 정책 부재 및 분절·파편적 지원

- 제품 수출 중심의 정책으로 서비스·기술 수출 등 새로 등장하는 수출동력원에 대한 정책이 부재
- 수출·해외진출 과정에서 자금·정보·규제 등 다양한 애로와 새로운 지원 수요가 발생하나, 수요 맞춤형 정책은 미흡

* (국내 애로요인) 물량확대·현지화 등에 따른 비용 부담, 정보 부족, 정책 활용 불편 등

* (해외 애로요인) 현지 법률·규제 대응 곤란, 신뢰할 만한 서비스 기관 찾기 어려움 등

- 기존 수출 단계별(내수기업, 수출 초보기업 등) 지원도 단순 예산 배정 수준으로 실효성 부족

* 수출 100만\$ 미만 수출기업 비중 : ('19) 84.8% → ('23) 84.0%

- 다양한 지원기관*이 있으나 연계·협력 지원 체계 미흡으로 성과 창출 반감

* 중진공, KOTRA, KOICA, 무보, 무역협회, 산업은행 등 국가별 20개 내외 기관



- 베트남에 법인 설립을 추진했으나, 신뢰할만한 서비스 기관 찾는데 애로
- 현지 국가의 법규 준수, 세무번호 등록, 법인 등록 등에 가장 곤란함을 느낌
- 해외에서 여러 지원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도록 '중소기업 전담창구' 필요

1 수출 및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

- 혁신중기·일반중기·소상공인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수출기업은 수출을 더 잘하게 하고, 내수기업은 수출·해외진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 전략 필요



2 새로 등장·고속 성장·급부상 분야 집중 육성

- 수출 고성장 기업, 스마트팜·콘텐츠·바이오 등 수출 유망분야의 글로벌화 가능 기업군 발굴 및 맞춤형 정책 강구
- 국내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해외진출 가속화 체계 마련
- 제품 수출을 넘어, 테크 서비스 및 기술수출 등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정책 개편

3 무역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지속성장 담보

- ESG 등 글로벌 규범 등장 및 주요 국가 통상환경 변화 등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글로벌 인재 확보를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 필요

4 글로벌 원팀 구축으로 정책 효율성·효과성 제고

- 관계 부처·지원기관 및 사업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강화

Ⅲ. 추진 방향

- ❖ 중소·벤처기업 수출 정책을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전반으로 “확장” 하고, 부처·기관 간 “연결”을 통해 “성과” 중심 정책으로 개편

추진체계



추진방향



내수 넘어 수출로

- 신규 수출·해외진출 동력원 발굴 및 집중 육성
- 수출단계별 집중 육성 체계 구축, 테크 서비스 수출 본격화 등



수출 넘어 해외로

- 해외진출 지원체계 확충
- 해외진출 K-글로벌 프로젝트 추진, 협업형 해외진출 프로그램 구축 등



해외 넘어 미래로

-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글로벌화 역량 강화
- 중소·벤처기업 K-수출전사 육성, 해외규제 대응력 제고 등



원팀 코리아

- 연결·협업체계 공고화로 글로벌 진출 적극 뒷받침
- 해외 지원기관간 협업네트워크 구축 등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

전략 1

내수 넘어 수출로

- ① 수출단계별 집중 육성 체계 구축
- ② 新 수출동력원 집중 발굴
- ③ 테크 서비스 및 기술수출 본격화

전략 2

수출 넘어 해외로

- ④ 해외진출 K-글로벌 프로젝트 추진
- ⑤ 협업형 해외진출 프로그램 구축
- ⑥ K-스타트업 해외진출 가속화

전략 3

해외 넘어 미래로

- ⑦ 중소·벤처기업 K-수출전사 육성
- ⑧ 미래 글로벌 기업 육성 R&D 강화
- ⑨ 해외 규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 ⑩ 중소·벤처기업 정책 글로벌 지향성 강화

전략 4

원팀 코리아

- ⑪ 민관협업 지원체계 구축
- ⑫ 수출지원센터 지역 접점기능 강화
- ⑬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

IV. 세부 추진과제

전략 1 내수 넘어 수출로

1. 수출단계별 집중 육성 체계 구축

① 혁신형 내수기업 1,000개 수출기업화 ■ 수출전략수립, 판로확보 지원 ■ 현지 K-혁신사절단 파견	② 유망 초보기업 100만\$ 수출기업 3,000개 육성 ■ 수출닥터제→1:1 밀착지원 ■ 애로해소→바우처 수시지원	③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도입 ■ 바우처·수출금융 지원 2배 확대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등
---	---	--

① [내수기업] 혁신형 내수기업 1,000개 수출기업화 (~'27) 강화

↳ 내수에서 매출·고용·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및 레퍼런스 확보 등 신규·특화 지원 실시

- (대상) 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 등), 공공구매 참여기업*, TIPS 기업 등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 성능인증 보유 및 혁신제품 등 국내 공공조달 레퍼런스가 확보된 우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 (지원) 내수에서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활용한 수출전략 수립·이행 지원

- ① (수출 전략 수립) 무역·기술 전문가와 함께 내수 판매 제품, 기술력 등을 기반으로 수출 유망국가 및 전략 수립 지원 ('24.하)

* 분야별 기술·무역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별도 자문

- ② (판로 확보) '성능인증', TIPS 성공 이력을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 성능인증서 및 TIPS 성공 확인서' 발급('24.5~), 바이어 매칭 지원**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완성한 제품의 성능을 중기부가 인증 ('23년말 1,069개사)

** 수출 전략에 맞춰 바이어 정보가 등록된 온라인 B2B 플랫폼(고비즈코리아) 활용 매칭 지원

- ③ (혁신 사절단) 현지 매칭 지원을 위한 "K-혁신사절단" 파견 ('25.상)

- 재외공관 원팀 협의체와 연계, 해외 진출 목표 국가를 직접 방문해 현지 바이어·유관기관 면담 및 현지 조사·개척 활동 지원*

* 시장조사, 법인설립·투자환경 등에 관한 세미나·상담 및 현지 AC·VC 등 유관기관 네트워킹

② [수출유망 초보기업] 수출 100만\$ 기업으로 3,000개사 육성 (~27) 신규

↳ 수출 100만\$ 미만 데쓰밸리 구간에 있는 수출유망 초보기업 밀착 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 수출액 100만달러 미만 유망 초보기업이 견고한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자문, 수시 애로 지원 등 전용 프로그램 신설
 - (수출닥터제) 대기업·무역상사 등에서 퇴직한 수출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수출 닥터”가 1:1로 중장기(3개월 내외) 밀착 지원
 - * 수출지원센터가 지역별로 풀을 구성하고 수출 관련 정기 자문
 - (수시 애로 지원) 밀착자문 과정에서 바이어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디자인개선 등)을 수시로 해결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수시지원 트랙 마련
 - * 수출바우처에 1천만원 내외로 소액을 지원하는 수시 지원 트랙

※ (참고) 수출 성장 단계에서 통상 수출 100만\$의 벽을 넘으면 규모의 경제 달성, 수출국 다변화, 제품군 다양화 등 수출 체계가 구축되어 이후 지속적인 성장이 용이한 편

- 반면 수출 초보기업 다수가 100만\$ 벽을 쉽게 넘지 못하는 수출 데쓰밸리 구간 존재

* '17년 수출중세의 수출 구간별 5년 후 성장모습 분석 결과 (다음구간으로 성장기업 비중(%)) : (내수~1천\$ 미만) 17.9, (1천~100만\$ 미만) 4.4(가장 저조), (100~200만\$) 19.4, (200~300만\$) 22.6, (300~400만\$) 26.6, (400~500만\$) 28.7

③ [고성장] 수출 고성장 기업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신규

↳ 수출이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고성장 유도

- 수출 고성장 기업*이 급증한 수출제품 생산, 디자인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적시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한도 상향 적용
 - * 예시 : 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0% 이상 기업 등 - 1천만\$ 이상 수출기업(2,166개)의 67%가 최근 10년내 '3년 20%' 고성장을 경험
 - 수출 바우처 및 수출금융(중진공)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 ('24.하)
 - 수출 고성장 기업은 수시로 신청·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장소기업으로 자동 지정하여 각종 우대 혜택 부여
- 지속 성장기업에는 차년도 R&D 우대 등 글로벌 초격차 역량 확보 지원

2. 新 수출동력원 집중 발굴

①미래 대비	②단기 중점 육성	③위기품목 대응
① 차세대 수출 주력품목 발굴·육성	② 한류 활용 K-전략품목 ③ 범부처 협업 유망분야 육성	④ 위기품목 수출 다변화

① 차세대 수출 주력품목 발굴·육성 프로그램 추진 **신규**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 수출 품목을 분석·선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차세대 주력품목으로 육성 (25.상)

* ① 글로벌 시장 규모 및 성장성, ② 국내기업 수출 증가율 및 경쟁력 등을 고려

- 중기부 수출 지원예산의 20% 내외를 新수출 주력품목에 지원
- 선정 품목에 대한 풍부한 상세 정보(시장 현황, 유망 국가 등)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시장 개척을 촉진

- 전문기관·협단체 등과 협업, 매년 유망 품목을 선정·공개

<국가별 新 수출 주력 품목 예시>

국가	시장현황	新수출 주력품목
인도	• 자국 내 제조업 확대를 위해 화학, 철강 등 15개 부문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제 운영	합성수지, 철강판 등
UAE	• '식량안보전략 2051'에 따른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첨단 농업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대	스마트팜 등
멕시코	• 美 프렌드 쇼어링 정책으로 차세대 제조거점 부상	자동차부품, 기타기계류 등

② 한류 활용 「K-전략품목」 육성 **신규**

- (K-뷰티·푸드) 한류 인기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뷰티·푸드 분야 전략 품목·제품에 대한 민·관 협업 지원 강화 (24.하)

* (뷰티) 23년 중소기업 수출 1위품목(20%↑) / (푸드) 라면 김 냉동김밥 등 신규품목 성장세 지속

- 유통 대기업이 선정한 우수 품목·제품을 정부가 함께 지원

* 이마트·신세계, 편의점·이커머스 업계 등 대기업은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및 해외 유통망 입점 등을 지원하고, 중기부 등 정부는 수출바우처, 해외전시회·인증, 정책자금 등 지원

- 농식품부·식약처 등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부처 지원역량 집중

* 농림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MOU 추진 (24.하)

- (新 한류 품목) 한류 호감도가 높은 분야 국가의 시장 현황, 성장세 등을 기반으로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新 한류 K-수출품목 발굴·지원** (‘24.하)
 - * 예시 : (태국) K-POP·드라마 인기 + 뷰티클리닉(매년 10% 성장) ⇒ K-미용 의료기기
 - ** 시장 현황, 고객특성, 유통망 등 주요 시장분석 정보 제공 및 민·관 협업 지원

3 **부처협업을 통해 新 수출동력 기업군 집중육성** 신규

- 관계 부처에서 특화 분야별로 중점 육성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수출정책을 연계 지원하여* 수출 스케일업 촉진
 - * 각 부처가 소관분야 수출 유망기업을 선별추천하고,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지원
- ‘23년 시범사업의 높은 성과(일반 지원기업 대비 11배)*에 따라 ‘24년에는 **협업부처**** 및 지원 규모(85→300개)를 대폭 확대하고 연계 지원도 강화
 - * ‘23년 수출증가율(5개 부처, 85개사 지원 %) : **40.1** >> **3.6**(수출바우처 전체) >> △2.3(수출 中企)
 - ** (기존 5개) 문체부, 복지부, 농식품부, 관세청, 조달청 → (4개 추가) 과기부, 교육부, 식약처, 특허청
- (중기부) 수출사업 전반으로 확대, 범부처 협업 수출기업 육성 체계 구축
- (협업 부처) 자체 운영 23개 프로그램도 연계 지원, 성과 제고(‘24)
 - * 복지부(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특허청(IP 기반 해외진출 지원), 조달청(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 등

4 **위기품목의 수출국 다변화 지원 강화** 신규

- 특정 국가의 수출이 지속 감소하는 품목에 대해 **다변화 유망국가**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위기품목 다변화 MAP***’ 구축 (‘24.하)
 - * 예시 : 정밀화학원료의 중국 수출은 2개년 연속 감소(‘22, △7.7% → ‘23, △21.9%)
→ 정밀화학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 폴란드 등으로 다변화
- 수출지원사업 **다변화 평가지표 비중**을 상향(‘23, 20% → ‘24, 30%) 하고, **다변화 성공기업 인센티브** (추가 20%) 강화

3. 테크 서비스 및 기술수출 본격화

1 테크 서비스 수출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편입, 지원 강화 신규

- 제품 수출기업과 다른 테크 서비스 수출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내용 및 평가지표 등을 차별화한 별도 트랙 마련 (’25)
 -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않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현지화(UI, UX 개선 등) 등을 신규 지원 (물류운송, 제품 디자인 등을 대체)
 - 타분야와 융합·협업 (IT+바이오 등)이 많은 테크서비스 기업이 협업 기업과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선정·지원방식 도입
 - * 공동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평가하여 단독참여시 낮은 수출액 등으로 선정이 어려울 수 있는 협업기업들의 참여 허용, 바우처 한도는 참여기업별로 배정 등
- 2.7%(’23)에 불과한 테크 서비스 기업 수출 지원 비중을 ’27년 10%, ’30년 15%로 확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

구분	현장목소리	지원 내용
지원	• 구독 서비스 제공, 해외 클라우드 비용 부담	• 클라우드 이용 비용 지원(전년도 해외 서비스 수출 실적기반으로 상한 설정)
	• 빠른 서비스를 위한 현지 데이터센터 비용 과다	• 해외 데이터 센터 공간 임차료 지원 (최대 2,000만원)
	• 제품 디자인 개선과 같이 서비스 현지화도 필요	• 테크서비스 UI/UX 지원 전문 수행 기관 확보·지원
평가	• 서비스 분야는 타기업 협업이 많으나 정부사업에 공동신청 불가	• 컨소시엄 단위로 참여 허용
	• 테크 서비스 분야 전문성 없는 제조 전문가 등이 평가	• 테크 서비스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배정

※ (참고) ‘테크 서비스’ 개념 : 디지털·AI 기술 단독 또는 분야별 전문 지식과 융합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기존보다 대폭 효율화된 서비스

< 유형별 사례 >

SW·클라우드·데이터	스트리밍·구독 서비스	플랫폼	신사업
SaaS, 게임, 솔루션 등	음악, 영상, 웹툰 등	배달·숙박·여행·모빌리티 등 플랫폼	에듀테크, 유전체 분석, AI 의료진단, 호텔·건설현장 디지털 관리 등

2 테크 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의 수출 성장 프로그램 추진 신규

- 테크 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이 많은 창업·R&D* 우수 기업을 테크 서비스 수출기업으로 육성('25)

* TIPS,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등

- 글로벌 진출 계획을 수립한 우수기업 100개사를 매년 선별하고, (성과에 따라) 최대 3년간 글로벌화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매년 1억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수출·현지진출 바우처, 해외전시회 등 필요사업 지원

3 기술도 전략적 수출 지원 대상으로 적극 지원 강화

- 해외 기술 수요기업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 기술정보를 등록한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구축('24, 기보)

- AI 기반 검색 및 매칭·추천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기술수출 희망기업에게 해외 기술수요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기업과 매칭

* 해외 민간 수행기관 등을 통한 기술수요를 발굴

-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매칭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가치평가 및 기술이전·라이센싱 컨설팅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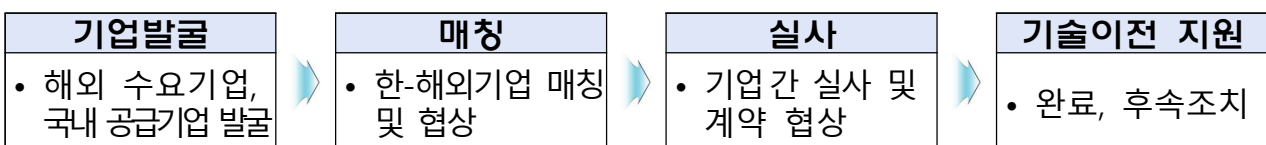
- (기술가치평가) 바우처 수행기관에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전문기술 분야 및 수행실적 등을 바탕으로 우수 기관 추천·지원



반려동물 유전자 분석(유전병 예측 등) 기술을 일본기업에 전수하고 로열티를 받기로 협의중이나, 제대로된 기술평가 기관을 찾기가 어려워 로열티 책정에 애로

- (라이센싱) 보유기술에 따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라이선싱 전략수립 컨설팅 및 계약 협상 지원

< 중소기업 기술수출 지원 절차 >



전략 2 수출 넘어 해외로

4. 해외진출 K-글로벌 프로젝트 추진

① 해외진출을 종합 지원하는 「해외진출 전용 바우처」 도입 **신규**

- 최근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전용 지원 프로그램 도입('25.상)
 - * 전략 수립, 현지 시장·환경 조사, 법인 설립 및 인·허가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별로 다른 환경에 맞춰 패키지 지원
- 올해 시범 지원*하고 지원범위 조정 및 수행기관 추가 등 보완
 - * 수출바우처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베트남 등 해외진출이 활발한 국가에 시범적용

<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용 바우처' 단계별 지원서비스 >

준비 단계	실행 단계	현지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진출 전략 수립· 사전 법률 컨설팅· 현지 시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절차서류 대행· 회계처리· 금융거래 자문· 입지 선정· 각종 인·허가· 현지인력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서비스 현지화· 영업, 마케팅· 현지경영컨설팅

②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정책금융 운용방식 도입 **신규**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GB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해외법인 평가체계 도입 ('24.하)
- 중소기업이 해외 법인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한 해외진출 스케일업 용자 신설('25)
 - 기술·사업성 평가를 거쳐 저금리(고정)·대규모(한도 50억원) 용자* 지원
 - * CB·BW 등을 인수하는 성장공유형 방식으로 저금리, 대규모 자금 공급
-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현지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보증을 연계한 운전자금 지원 강화 (30억 → 50억원, 기보)
 - * 기술성 인정기업(기술평가등급 BB이상)에 대해 해외진출보증 50억까지 한도 확대

5. 협업형 해외진출 프로그램 구축

1 프로젝트형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보호무역주의·수출규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하는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동반진출 상생 프로그램 도입 (24.하)
 - 기존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대·중소기업 참여 프로젝트 단위로 최대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고, 동반진출 보증 연계
 - 대기업은 설비구축·제품 생산 등을 위한 기술 컨설팅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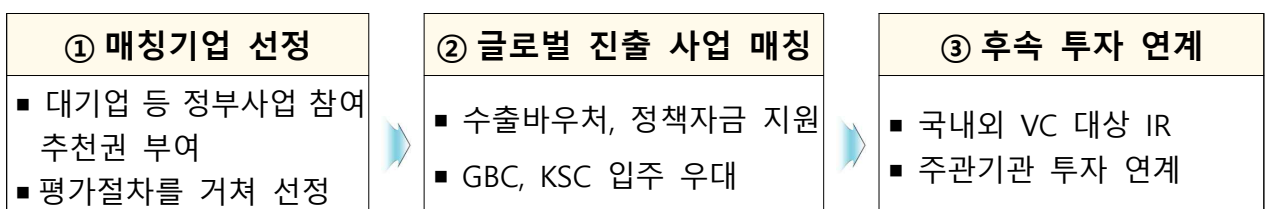
구 분	현 행	개 선
지원유형	• 1년, 단기과제	• 3년, 프로젝트형 장기과제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 컨소시엄(참여기업 수)에 따라 최대 10억원
연계지원	-	• 기업당 최대 200억원 보증 연계(기보)

2 민간 역량 활용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도입 신규

- 대기업·금융기관* 등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해외진출 혁신기업에 대해 정부 수출 정책을 매칭 지원하여 성과 극대화
 - * 사례 : CJ 인베스트먼트(글로벌 대기업 매칭, PoC 지원), 롯데 벤처스(베트남·일본 진출), 신한 퓨처스랩(일본 진출) 등

- 민간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정부에 추천하면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수출 해외진출 바우처, 정책자금, GBC·KSC 우선입주, 투자연계IR 등 지원(25.상)

* 정부 수출지원 사업별로 민간 운용사가 연간 추천할 수 있는 물량 배정



6. K-스타트업 해외진출 가속화

1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 유치 프로그램 'K-GLOBAL STAR' 신설 신규

- 국내외 우수 VC의 검증과 투자를 받은 유망 스타트업을 실리콘 밸리 등 글로벌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글로벌 IR 브랜드 신설 ('24.하)
 - AI 등 딥테크 분야별로 스타트업을 선별('24. 30개사 내외), 일본('24.5)을 시작*으로 미국('24.하), 한국('24.12, 컴업)에서 대규모 IR 행사 개최
 - * 한·일 양국 스타트업 IR 및 네트워킹 지원, 한·일 CVC 서밋 개최 등
-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할 경우, 글로벌TIPS, 기보 보증, 모태펀드 매칭 투자 등 과감한 정책지원 패키지 제공 ('25~)



2 ODA를 활용한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사다리 마련 신규

- TIPS 성공기업에 CTS*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실증·시범사업 등 후속 지원,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첫걸음을 ODA로 지원**
 - * Creative Technology Solution(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 스타트업 등의 혁신기술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KOICA ODA 사업 (3단계, 최대 8억원 지원)
 - ** '개도국 진출 → 해외 실증사례 확보 → 글로벌 진출 확대' 선순환 도모
- CTS 프로그램 수혜기업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SC 우선입주, 해외진출 전용 바우처 연계 지원

3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해외까지 확대 강화

- 국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자문서비스 및 자문사례 DB를 구축* ('24)하고, '25년부터 해외진출 스타트업으로 지원확대
 - * 법률 상담사례를 축적하고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DB화 추진
- GBC·KSC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률·회계 자문 서비스를 현지 진출 스타트업 (비입주기업)으로 확대 실시 ('24.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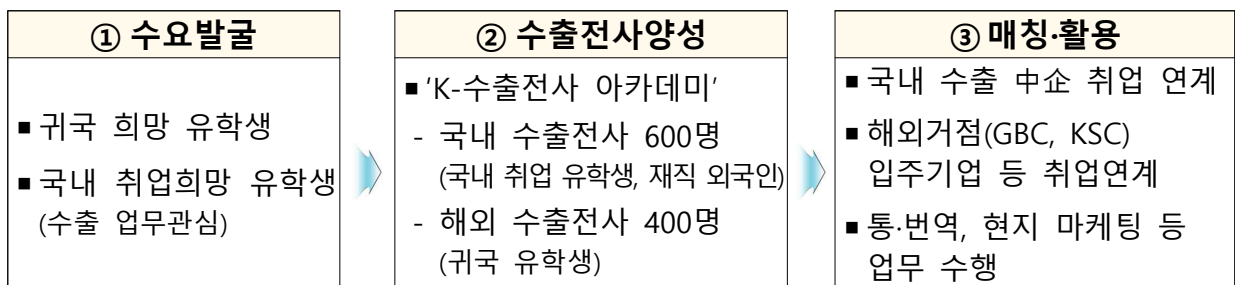
전략 3 해외 넘어 미래로

7. 중소기업 K-수출전사 육성

1 유학생 활용 K-수출전사 1,000 프로젝트 추진 신규

- (교육)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 및 중소기업 연수원을 통해 수출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수출전사 아카데미' 교육과정 신설 ('24.하)
 - 수출입 통관 등 수출직무 교육과정으로 3년간 ('24~'26) 1,000명* 교육
 - * (案) : ('24) 100명 → ('25) 300명 → ('26) 600명
- (매칭·활용) 국내 중소기업 (국내 취업 희망 유학생 대상) 및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 (귀국 유학생 대상)으로 채용 연계 지원
 - * 직무교육(OJT형), 취업 연계 및 비자 전환(D2, D10 → E7) 등 일괄 지원
 - ** 중진공, KOTRA를 통해 해외거점 (GBC, KSC 등) 입주기업 등과 취업매칭
 - 통·번역, 통관 등 중소기업 수출 및 현지 마케팅 업무 수행

<K- 수출전사 1,000 프로젝트>



2 해외거점 (GBC, KSC)을 활용한 현지인력 채용 지원 신규

- 中企 해외거점 (GBC, KSC 등)과 현지대학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입주기업-대학간 공동연구 및 채용 연계 등 지원 ('24, 4개소 시범 추진)
 - * (사례) 싱가포르 KSC가 입주기업과 싱가포르 국립대(NUS)를 연계하여,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인턴쉽 연계 ('22)
 - ** 시카고 GBC, 뉴델리 GBC, 인니 GBC, 싱가포르 KSC 시범 추진

8. 미래 글로벌 기업 육성 R&D 강화

1. 글로벌 공동 R&D 프로그램 신규 운영 신규

-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 R&D 협력을 단계적으로 지원(PoC→R&D→사업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25)

* (예시) 佛 파스퇴르연구소, 獨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 정부는 해외연구소와 국내 딥테크 기업 간 협력과제 매칭 및 현지 PoC 지원, 글로벌 연구기관은 협력과제 발굴과 사업화 및 네트워킹 지원

< 佛 파스퇴르연구소 기술사업화 협력프로그램(안) : '24.하 업무협약 검토 >

- 지원분야 : 신약개발·의공학 등 바이오분야 딥테크 전략기술 개발사업화
- 지원내용 : 파스퇴르 연구소 공동협력 R&D·규제대응(인증 등) → 현지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보육·투자·멘토링 연계 지원

- 글로벌 기술이전·사업화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우수기술 도입 및 국내 중소기업 애로기술 분석·해결 등 지원 ('25)

* 獨 슈타인바이스 재단(Steinbeis Foundation) : 독일 등 1,000여개의 기술센터 보유

2. 국내 혁신선도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강화

- 해외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전용 R&D를 신설하고, 「1단계(시장조사) → 2단계(R&D) → 3단계(현지 실증)」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 ('24)

* 수출지향형 R&D 지원사업('24, 315억원) 내 해외시장 진출 전용 R&D 시범 운영(20억원)

- 국가 전략기술 분야* 혁신기업이 세계 최고 R&D 수준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 확대('23, 2개 → '24, 10개)

*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 프로젝트당 민·관 합동 100억원 지원

- 과제기획 과정에서 글로벌 선도 가능성 및 연구 협력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획

* 과제기획대상 선정 시 '글로벌 시장 선도 가능성' 배점 확대 등

9. 해외 규제 ·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1 해외 수출규제 전방위 대응지원 강화

- 급증하고 있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기존 해외인증 이외에 공급망 관련 규제, 표시규제 등 수출규제* 전반 지원으로 확대·개편

* 수출규제 구분: ①인증(CE, FDA 등), ②공급망 관련 규제(공급망실사지침, CBAM 등), ③표시규제 등(라벨링, 성능요구기준 등)

- (공급망 규제) EU 공급망 실사지침* 관련 진단평가, 구조개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등 종합컨설팅 지원 확대('23, 20 → '24, 50개사) **강화**

* EU 역내외 일정규모 이상 기업과 그 협력사에 환경·인권·노동에 관한 부정적 영향 실사 및 문제 해결을 의무화 하는 법안으로 '24년 4월 발효 후 '27년 시행 예정

- (표시규제 등) 인증과 같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표시규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분석비용 지원 신설('25) **신규**

<주요 분야별 표시규제 예시>

화장품	식품	화학물질	배터리	가정용 전기기기
美 MoCRA 소성분·책임업체 라벨링 의무화	호주·뉴질랜드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조치	EU REACH 고위험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	배터리 사용 및 운송 관련 안전성·성능 검증 요구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링 의무화

- 기존 해외인증 전담대응반을 수출규제 전담대응반으로 확대·개편해 해외인증 이외에 수출규제 전반에 대한 애로 파악·상담 지원('24.6) **강화**

* (기준)수요 높은 8대 해외 인증(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 (확대)상위 12대 인증(추가 4개, HALAL, IECEX, REACH, RoHS) 및 표시규제(화장품·식품 등 5대 분야)

2 신속한 규제 영향 분석·대응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중기부-산업부, '24.7) **신규**

- 해외 수출규제 모니터링 등을 총괄하는 산업부(국표원)는 수출규제 영향 파악 시 중소기업 파급력 여부까지 분석* 추진

* 규제 수준, 시행시기,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군(화장품·식품 등) 여부 등

- 중기부는 산업부 분석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규제의 범위, 추가 소요 비용(시험분석 비용 등) 등을 산출하여 중소기업 지원 추진

- 기업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영향 정보를 전담대응반·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신속 전달

10. 중소기업 정책 글로벌 지향성 강화

① 주요 국가와 중소기업·벤처분야 정책·교류 협력 추진 신규

- 경제외교 성과 점검과 중소기업·벤처분야 정책교류·협력, 해외 진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협의체 신설 ('24.5~)

* 사례 : 리야드 GBC 구축시 우리정부가 사우디정부와 협의하여, 사우디는 우리기업의 현지 사업 라이선스 취득 기간단축 및 비용 절감, 현지 계좌개설·비자발급 지원 등 혜택 제공

② 혁신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글로벌 평가지표 추가 신규

-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평가지표에 글로벌 지향 요소 반영을 위한 정책연구 및 고시 개정·시행 ('25.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 글로벌 평가지표 추가 개발·반영 ('25.상)

* 현행 : 수출액, 국외특허 수, 해외 기관과의 업무상 제휴 실적 등 평가 중

③ 중소기업 정책의 글로벌 수준 평가제 도입 신규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유도를 위해 지원사업 신청 시 수출실적·해외진출 노력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 수준 평가제' 도입 ('25)

* (유사사례) 중소기업자리평가(중기부), 성별영향평가(여가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 지표 및 비중 검토 예시 >

구분	지표 및 비중 예시
지표	개별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매출액 대비 수출액, 수출액 증감률, 수출국가 다변화 정도 등
비중	사업별로 총점의 10~15%를 수출지표에 배정

- 창업·R&D·자금 등 중소기업 분야별 정책에 글로벌 지향 전용 트랙 확대·신설 ('25)

11. 민관협업 지원체계 구축

① 국내외 민·관 합동 지원 협의체 본격화 **신규**

- (국외) 재외공관 주재, 공공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운영을 본격화하여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촉진
 - 베트남, 인도, 워싱턴 등 20곳 既구성(5.6), 5월까지 25개 지역으로 확대
- (국내) 재외공관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국내에도 유관기관 및 민간(금융·회계·법무) 중심으로 국내 원팀 협의체 구성 ('24.5)
 - * (역할) 재외공관 협의체의 현지 정보를 국내 확산, 현지에서 해결하지 못한 애로 국내 검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나 정책정보 등을 재외공관에 전달

② GBC·KSC의 역할 및 기능 확대 **강화**

-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보조하고 애로 접수, 유관기관 연계 등 현지진출 중소기업의 협의체 창구(간사) 역할 수행
 - * 긴밀한 협업을 위해 GBC·KSC를 재외공관 인근으로 접근성 제고
- 국내외 기관(KOTRA, 창진원, KVIC, 기보 등) 협업을 통해 현지진출 정보제공, 입주·보육, 법률 자문, 자금지원 등 종합지원 기능 확충
 - * 정보제공 : 법인설립, 계좌개설 등 현지 진출 기본 정보 및 노하우(Know-how)와 사례 등
 - 직접연계지원 : 투자IR, 법률세무 자문, 바이어시장정보(무역관), 보증(기보), 금융(현지은행) 등

③ 글로벌 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 **신규**

- 국내외 협의체의 해외시장 정보, 애로 해소사례 등을 통합 분석하는 'Global 센터('24.하, 중기연)' 및 분석정보 제공 포털* 구축 ('25)
 - * 기존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을 확대 개편 (가칭 '글로벌화 종합지원포털')
- 국내 원팀 협의체 유관기관이 국가별 해외진출 정보를 종합제공하는 **합동상담회** 주기적 개최 ('24, 베트남, 인니 등 3회)

12. 수출지원센터 지역 접점기능 강화

◇ 지역 중소·벤처기업도 국내외 민·관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수출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1 지역내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 지원범위 확대 강화

- (정보제공) 국내외 민·관 협의체를 통해 전달받은 글로벌화 정보 (해외시장 정보, 지원서비스 등)를 온·오프라인으로 지역 기업에 전파**
 - * 글로벌화 종합지원 포털 운영, 세미나 개최 등
- (정보교류) 지자체별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시 국내 원팀을 통해 재외공관 원팀에 전달, 현지와 사전 정보교류를 통해 참여기업에 실질적 도움 제공
 - * 예) (서울) 이커머스페어 개최, (부산) 중동진출 수출상담회, (대전) 베트남 호치민 박람회 등
- (애로해소) 수출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글로벌화 애로를 발굴하여 국내외 민·관 협의체를 통해 해소 추진*
 - * ① 국내 애로 : 국내 협의체 참여기관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 ② 해외진출 애로 : 해당국가 재외공관 민관협의체 (GBC 등 간사 기관으로 전달)로 전달하고, 현지에서 정보를 파악·지원

2 글로벌화 자문 서비스 및 기업간 연결 기능 강화 신규

- (자문)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화 컨설팅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 기업에 안내·연결
 - * 예시 : 이동 코트라(KOTRA), 무역현장컨설팅(무역협회), 지자체별 수출 자문 컨설팅 사업 등
- (기업간) 우수 수출기업* 대표가 해외진출 노하우 등을 지역기업과 공유하는 '해외진출 노하우 나눔 콘서트' 운영 (센터별 연4회)
 - * 지역별로 전략산업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해외진출 우수기업을 5개 내외 선정

구 분	현 행	개 선
정보제공	• 국내 수출 정책정보 안내	• 국내외 민관 협의체 지원서비스 정보 • 해외시장 정보
애로해소	• 발굴된 애로를 옴부즈만, 윈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해소	• 글로벌화 애로까지 확대 발굴 • 국내외 협의체를 통해 해소
상담·자문	• 정책정보제공 위주의 단순 상담	• "해외진출 나눔 콘서트" 도입

13.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

①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통계·데이터 등 기반 마련 신규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 '24.하)

- (통계)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 수립을 위해 수입·서비스 수출·해외투자 등 다양한 통계 확보 근거 마련

* 현재 관세청 (제품) 수출 통계만 수집·활용 중(판로지원법 제31조 근거)

- 각 부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출 및 해외진출 활동 통계*를 확보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성과평가 추진

* 해외투자통계(수출입은행), 서비스 무역(한국은행), 기술무역통계(과기부), 수입 통계(관세청), 간접수출통계(무역협회) 등

- (정책정보) 각 부처·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안내·시행하는 다양한 글로벌화 정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공고 등 근거 마련

* 사례 : 「창업지원법」 제14조(통합공고) 및 제15조(창업지원포털, K-Startup)

② AI·빅데이터 기반 수출 지원정책 성과분석 및 정보제공 신규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에 중소기업 수출 데이터도 연동하여 수출 지원정책 성과분석 및 정책 수립에 활용 ('25)

* 중소기업 지원이력, 기업별 성과(매출·고용·수출 등) 등 중소기업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4.하)

- 무역투자 빅데이터 서비스 '트라이빅*(KOTRA)'에 중소기업 수출 데이터를 연결하여 품목별 유망시장, 수출현황 등 정보제공 ('24.말, 산업부 협업)

* 수출 희망 품목 HS CODE를 입력하면 AI 분석을 통해 수출 유망시장 및 해외 바이어를 추천하고, 관련 시장정보도 제공

V. 추진 일정

정책 과제	부처·기관	추진 시기
1. [전략1] 내수 넘어 수출로		
① 수출단계별 집중 육성 체계 구축	중기부	'24.하
② 新 수출동력원 집중 발굴	9개 부처 등	'24.하
③ 테크 서비스 및 기술수출 본격화	중기부	'24.하
2. [전략2] 수출 넘어 해외로		
④ 해외진출 K-글로벌 프로젝트 추진	중기부/중진공/기보	'24.하
⑤ 협업형 해외진출 프로그램 구축	중기부/기보	'24.하
⑥ K-스타트업 해외진출 가속화	중기부	'24.하
3. [전략3] 해외 넘어 미래로		
⑦ 중소·벤처기업 유학생 활용 K-수출전사 육성	중기부	'24.하
⑧ 미래 글로벌 기업 육성 R&D 강화	중기부	'24.상
⑨ 해외 규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중기부/산업부	'24.6
⑩ 중소·벤처기업 정책 글로벌 지향성 강화	중기부	'24.5
4. [전략4] 원팀 코리아		
⑪ 민관협업 지원체계 구축	외교부/중기부	'24.4
⑫ 수출지원센터 지역 접점기능 강화	중기부	'24.9
⑬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	중기부	'24.말

글로벌 도전은 **쉽게**, 성장은 **빠르게**, 지원은 **촉촉하게**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역동적 경제의 주역
중소기업



추진목표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

내수 넘어 수출로

- 01. 수출단계별 집중 육성 체계 구축
- 02. 新 수출동력원 집중 발굴
- 03. 테크 서비스 및 기술수출 본격화

수출 넘어 해외로

- 04. 해외진출 K-글로벌 프로젝트 추진
- 05. 협업형 해외진출 프로그램 구축
- 06. K-스타트업 해외진출 가속화

해외 넘어 미래로

- 07. 중소·벤처기업 K-수출전사 육성
- 08. 미래 글로벌 기업 육성 R&D 강화
- 09. 해외 규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 10. 중소·벤처기업 정책 글로벌 지향성 강화

원팀 코리아

- 11. 민관협업 지원체계 구축
- 12. 수출지원센터 지역 점점기능 강화
- 13.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